

## Section I. Global Macro Regime: 2026, Before Rising

### 1.1 2026: Before Rising, 상승 이전의 정체 국면

2026년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위기의 종결도, 본격적인 확장의 시작도 아닌, '상승 이전의 정체 국면 (Before Rising)'으로 규정된다.

이는 경기 침체를 피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과거와 같은 강한 성장·유동성 사이클로 복귀가 구조적으로 제약된다는 현실 인식이 공존하는 상태다. 글로벌 경제는 급락을 피했으나, **성장**과 **자산 가격** 모두 **'속도'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시험받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 1.2 경기 국면: 침체 회피 이후의 저속 순환

2026년의 글로벌 경제는 전형적인 리세션 국면과는 구분되며, 고금리 환경의 누적 충격을 흡수한 이후의 지속 성장 국면에 위치해 있다. 주요국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 차원의 급성 위기 신호는 제한적인 반면, 성장의 재가속을 뒷받침할 동력 역시 뚜렷하지 않다.

- 미국은 급격한 경기 하강 없이 잠재성장률 부근의 완만한 성장 경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 중국은 구조적 성장 둔화가 고착화되며, 과거와 같은 글로벌 성장 엔진 역할을 재현하기는 어렵다.
- 유럽 및 주요 신흥국은 지역별 회복 경로가 상이하게 전개되겠으나, 동시적 확장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2026년은 전반적으로 완만하지만 의미 있는 가속이 부재한 성장 환경이 글로벌 공통 분모로 작용하는 국면으로 평가된다.

---

### 1.3 인플레이션과 정책 환경: 안정은 확인, 확신은 부재

물가 측면에서 2026년은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한 상태에 있다. 주요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안정 구간에 진입했으며, 정책당국이 우려하던 급격한 재가속 시나리오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 다만, 이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서비스 물가와 임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물가 압력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 공급망 정상화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는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되었다.
- 지정학적 변수와 정책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물가 기대를 재자극할 수 있는 잠재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은행은 단순한 물가 안정의 달성보다는, 정책 신뢰도 유지와 금융 안정 간의 균형을 보다 중시하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

---

### 1.4 통화정책의 성격 변화: '인하 사이클'이 아닌 '휴지기'

2026년 통화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완화'가 아니라 '휴지기(Policy Pause)'다. 기준금리는 고점을 통과했지만, 과거 위기 이후와 같은 빠르고 공격적인 인하 사이클로 전환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 하에 놓여 있다.

- 성장 둔화는 인하 명분이 될 수 있으나, 침체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 금융자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회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재정 정책, 국채 공급 확대, 글로벌 금리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정책 여지를 제한한다.

이로 인해 2026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비선형적 통화정책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 1.5 자산시장 공통 작용 조건

이러한 매크로 환경은 모든 자산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투자 조건을 형성한다.

첫째, **방향성의 약화**다. 2026년은 단순한 상승·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격 구간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다.

둘째, **변동성의 상시화**다. 정책, 금리, 환율에 대한 기대 변화가 자산 가격에 반복적으로 반영되면서, 변동성은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 환경 변수로 작용한다.

셋째, **상대가치 전략의 구조적 우위**다. 단일 자산군의 방향성 베타에 의존한 전략의 효율은 점차 사라지고, 자산 간·구간 간 상대 성과를 관리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

### 1.6 2026년 매크로 환경의 함의

요약하면, 2026년은 위기 이후의 전통적인 회복 국면도, 새로운 유동성 랠리의 출발점도 아니다. 이는 오히려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해', 그리고 **방향성보다 구조를 읽어야 하는 해**에 가깝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빠른 결론이나 단순한 가격 전망보다, 정책 전달 경로와 자산 간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이는 이후 금리, 자산배분, Crypto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공통된 전제가 된다.

## Section II. Monetary Policy & Liquidity Transmission

### 완화의 속도보다 전달 구조

#### 2.1 통화정책의 전환점: 인하 국면이 아닌 정책 휴지기의 연장

2026년을 앞둔 통화정책 환경은 전통적인 의미의 인하 사이클과는 거리가 있다.

기준금리는 고점을 통과했지만, 이는 곧바로 적극적인 완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책당국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통화정책은 방향성보다 **속도와 범위가 제한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통화정책의 성격은 '완화의 시작'이 아니라 **긴축 종료 이후의 정책 휴지기 (policy pause)**가 연장되는 구간에 가깝다.

#### 2.2 완화의 성격 변화: 확산이 아닌 선택적 전달

과거 완화 국면에서 유동성은 빠르게 확산되며 자산 전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2026년의 완화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 정책 완화의 속도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며
- 재정 정책, 국채 공급 확대, 글로벌 금리 구조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 금융 시스템 전반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유동성이 축적되어 있다.

이로 인해 완화는 전면적인 자극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전달되는 조건부 완화의 형태를 띤다. 유동성은 더 이상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 2.3 유동성의 이동 구조: 확산에서 집중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자금의 이동 구조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째**, 완화의 초기 효과는 금리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현금흐름·듀레이션 민감 자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둘째**, 정책 기대가 누적될수록 자금은 구조적 수요와 흡수 능력을 갖춘 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한다.

**셋째**, 베타 중심 자산이나 내러티브 기반 자산은 유동성 둔화 환경에서 상대적인 매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2026년의 유동성은 과거와 같은 확산되는 힘이 아니라 집중되는 힘으로 작용한다.

#### 2.4 Crypto의 위치: 즉각적 수혜가 아닌 후행적 흡수처

이러한 전달 구조 속에서 Crypto의 위치는 비교적 명확하다. Crypto는 금리 인하의 즉각적 수혜 자산이 아니다. 정책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군도 아니며, 완화의 출발점에 위치한 자산도 아니다.

Crypto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국면에서 비로소 의미 있는 흐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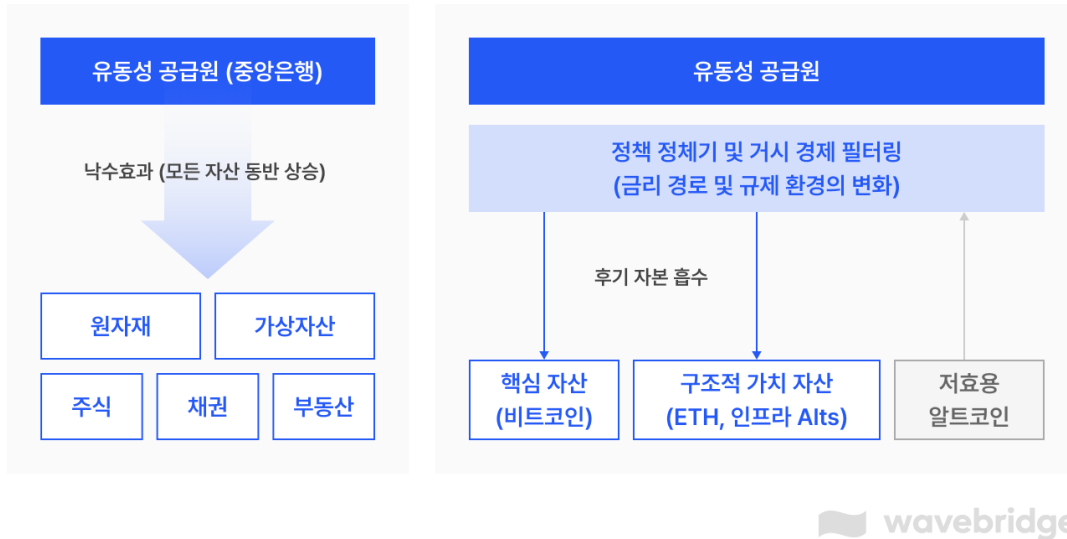
- 정책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해소되고
- 유동성이 방향성보다 정착지를 탐색하기 시작하며
- 자본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구조적 배치를 고민하는 단계에 진입할 때다.

이 시점에서 Crypto는 단순 고위험 베타 자산이 아니라 완화 국면 후반부의 유동성 흡수 자산으로 인식된다.

##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흐름

과거 : 광범위한 자본 확산

2026:선별적 자본 집중



### 2.5 2026년 통화 환경이 Crypto에 부여하는 조건

2026년의 통화정책 환경은 Crypto 시장에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을 부여한다.

- 빠른 전면적 랠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유동성만으로 설명되는 베타 확장은 제한된다.
- 대신, 구조적 역할과 자본 수용 능력이 성과를 좌우한다.

이러한 조건은 Crypto 시장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모든 자산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자산 간 역할 분화와 성과 차별화는 불가피해진다.

### 2.6 다음 논점: 정책 이후의 자산배분

통화정책의 방향보다 전달 구조가 중요해진 환경에서는, 논의의 초점 역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문제는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면 무엇이 오르는가”가 아니다. 이 환경에서 자본은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가 핵심이 된다.

다음 섹션에서는 2026년 자산배분의 성격 변화와 위험 선호의 재편을 통해, Crypto가 어떻게 하나의 선택지로 등장하는지를 살펴본다.

## Section III. Asset Allocation Shift & Risk Preference

### 베타 이후의 자산배치

#### 3.1 자산배분 환경의 전환: 빠른 돈의 시대 종료

2026년 자산배분 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본의 속도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자본이 빠르게 이동했으며, 단순한 베타 노출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이미 종료되었다.

- 유동성은 제한적으로 공급되며
- 정책은 자산 가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 자본은 손쉬운 방향성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은 빠른 돈이 아니라, 남아 있는 돈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해에 가깝다.

#### 3.2 위험 선호의 변화: 방향성에서 구조로

위험 선호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산을 선택하는 기준은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에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로 이동한다.

이 환경에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 이 자산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를 정당화할 근거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위험자산과 구조적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게 만든다.

#### 3.3 상대가치와 변동성의 재부상

방향성이 약화된 환경에서는 절대 수익보다 상대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 자산 간 성과 격차는 확대되고,
- 동일 자산군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되며,
- 변동성은 회피 대상이 아니라 전략 변수로 재등장한다

이는 2026년이 단순한 보유 중심의 자산배분이 아니라, 구조·상대가치·변동성을 활용하는 자산배분의 해임을 의미한다.

#### 3.4 Crypto의 등장: 위험자산이 아닌 대안 구조

이 지점에서 Crypto는 기존의 위험자산 분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Crypto는 전통적인 의미의 경기 민감 자산도 아니며, 정책 기대에 즉각 반응하는 자산군도 아니다. 동시에, 기존 전통 자산으로 대체 가능한 성격 역시 갖고 있지 않다.

자산배분 관점에서 Crypto가 하나의 선택지로 등장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 전통 자산군 외부에 위치한 구조,
- 독립적인 수급과 고유한 시장 메커니즘,
- 변동성을 포함한 자체적인 보상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Crypto가 단순한 '리스크를 더하는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를 확장하는 자산으로 인식되

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 3.5 선택의 기준: 베타가 아닌 역할

2026년의 자산배분 환경에서 Crypto에 대한 접근 역시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문제는 더 이상 “Crypto에 투자할 것인가”가 아니다.

핵심은 “Crypto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다.

- 변동성을 감수하는 베타 노출인가,
- 구조적 수급을 활용하는 포지션인가,
- 혹은 전통 자산과 다른 위험원을 제공하는 대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Crypto 내부 자산 간 배치 역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

### 3.6 다음 단계: Crypto 내부의 역할 분화

자산배분의 기준이 방향성과 베타에서 구조와 역할로 이동했다면, 다음 논의는 불가피하다.

<b>Crypto 내부에서는 어떤 자산이 이 환경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는가?</b>
---

모든 Crypto 자산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성과 역시 자산별 역할에 따라 분화된다.

다음 섹션에서는 2026년을 기준으로 Crypto 시장 내부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Bitcoin (BTC), Ethereum (ETH), Altcoin, DeFi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정리한다.

## Section IV. Crypto Market Structure in 2026

### 역할이 고정되는 시장

#### 4.1. Bitcoin (BTC): 거시 민감 준비자산으로의 고착

2026년의 Bitcoin (BTC)은 더 이상 Crypto 시장 내부의 방향성을 대표하는 자산이 아니다. Bitcoin (BTC)은 이미 독립적인 매크로 자산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현물 ETF 도입 이후 Bitcoin (BTC)으로 유입되는 자본은 트레이딩 중심의 자금이 아니라, **보유와 구조적 배치를 전제로 한 자금**에 가깝다. 이는 Bitcoin (BTC)의 가격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서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Bitcoin (BTC)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 개별 프로젝트나 내러티브에는 의존하지 않으며,
- Crypto 내부 변동성 국면에서도 가장 먼저 안정화되는 자산군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Bitcoin (BTC)은 고위험 자산이 아니라, **거시 환경에 반응하는 디지털 준비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

#### 4.2. Bitcoin (BTC)의 성과 논리: 베타가 아닌 수급

2026년 Bitcoin (BTC)의 성과는 전통적인 의미의 위험 선호 확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Bitcoin (BTC)의 가격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수급 구조**다.

- 신규 공급은 점진적으로 제한되며,
- 장기 보유자 비중은 안정화되고,
- 기관 자금은 가격보다 접근 가능성과 수용 능력을 더 중시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Bitcoin (BTC)은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하방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산**으로 인식된다. 이는 Bitcoin (BTC)의 매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포트폴리오 내 편입 논리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

#### 4.3. Ethereum (ETH): 가격 자산이 아닌 인프라 자산

Ethereum (ETH)은 Bitcoin (BTC)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 Ethereum (ETH)의 역할은 가치 저장이나 거시 헤지에 있지 않다.

2026년의 **Ethereum (ETH)**은 **온체인 금융과 토큰화 인프라의 정산 레이어**로 기능한다.

- 스테이킹은 네트워크 보안과 수익 구조를 결합한 메커니즘이며
- RWA,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파생상품의 확산은 트랜잭션 기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 레이어2 확장은 Ethereum (ETH)의 역할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정산 레이어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Ethereum (ETH)는 단기 가격 성과보다 시스템적 중요성이 먼저 평가되는 자산에 가깝다.

---

#### 4.4. Ethereum (ETH)의 한계와 조건부 매력

다만, Ethereum (ETH)의 구조적 중요성이 곧바로 가격 성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 네트워크 확장 이후 가치 포착 구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며,
- 수요 증가가 토큰 가격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이되는지는 조건부이고,
- Bitcoin (BTC)에 비해 수급 구조의 단순성은 떨어진다

이로 인해 Ethereum (ETH)은 Bitcoin (BTC)과 같은 코어 자산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조건부 구조 자산**으로 분류된다. Ethereum (ETH)의 매력은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금융 활동이 이 레이어 위에 정착하는가**에 달려 있다.

#### 4.5. Bitcoin (BTC)과 Ethereum (ETH)의 역할 분리

2026년 Crypto 시장에서 Bitcoin (BTC)과 Ethereum (ETH)은 더 이상 동일한 축 위에 있지 않다.

- Bitcoin (BTC)은 거시 민감 자산이며,
- Ethereum (ETH)은 금융 인프라 자산이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자산이다. 이러한 역할 분리는 Crypto 시장 전체의 성격 변화를 상징한다. 단일 자산이 시장을 대표하던 국면은 이미 종료되었다.

#### 4.6. 다음 논의: 선택과 배제의 영역

Bitcoin (BTC)과 Ethereum (ETH)이 각각의 역할을 고정해가는 반면, 그 외의 자산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다. 모든 자산이 구조적 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프로젝트가 자본의 정착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Altcoin과 DeFi를 하나의 묶음으로 다루며, **2026년 Crypto 시장에서 선택과 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 4.7. Altcoin & DeFi: 확장의 종료, 선별의 국면

2026년의 Altcoin과 DeFi 시장은 더 이상 동일한 범주로 묶여 설명되기 어렵다. 다만,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전제는 분명하다.

**전면적 확장은 종료되었고, 선별이 구조로 작동한다.**

과거와 같은 유동성 주도의 Altcoin 랠리는 재현되기 어렵다. 자본은 더 이상 빠르게 순환하지 않으며, 모든 프로젝트를 동시에 지지할 만큼 확산되지 않는다. 이 환경에서 Altcoin과 DeFi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검증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 4.8. Altcoin: 베타 자산에서 분배 자산으로

Altcoin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자산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Altcoin은

- BTC 상승의 레버리지 역할을 했고
- 유동성 확산 국면에서 베타 자산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2026년의 Altcoin은 이러한 기능을 지속하기 어렵다.

- 유동성은 구조적으로 제한되며,
- 자금은 소수 자산에 집중되고,
- 내러티브만으로는 자본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 결과 Altcoin 시장은 상승의 출발점이 아니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작동한다. 성과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만 발생하며, 시장 전체의 동반 상승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4.9. Altcoin의 생존 조건: 연결성과 실질 수요

그렇다고 모든 Altcoin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건은 명확해졌다.

2026년 Altcoin의 생존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Bitcoin (BTC)과 Ethereum (ETH) 생태계와의 **구조적 연결성**,
- 실사용 기반의 **지속적인 수요**,
- 규제·제도 환경을 고려한 **명확한 포지셔닝**.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단기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자본의 정착지로 기능하기 어렵다. Altcoin 시장은 기회가 사라진 시장이 아니라, **기회의 범위가 극단적으로 축소된 시장**에 가깝다.



#### 4.10. DeFi: 고수익 모델의 종결

DeFi 역시 동일한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 2026년의 DeFi는 더 이상 고APY와 인센티브 중심의 실험 공간이 아니다.

- 토큰 인플레이션에 의존한 수익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 단기 유동성 유입을 전제로 한 구조는 빠르게 붕괴된다.

이로 인해 DeFi 시장은 **수익의 원천이 명확한 구조만이 생존하는 환경**으로 재편된다. 수익은 더 이상 토큰 발행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수수료
- 스프레드
- 중개 마진

과 같은 실질적 금융 기능에서 발생한다.

---

#### 4.11. DeFi의 재정의: 인프라적 금융 기능

이러한 변화 속에서 DeFi의 역할은 재정의된다. 2026년의 DeFi는 전통 금융을 대체하는 실험이 아니라, **전통 금융의 기능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인프라에 가깝다.**

- 파생상품,
- 대출,
- 스테이블코인,
- RWA 연계 구조.

이 영역에서만 DeFi는 구조적 자본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DeFi가 보수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권 자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정제되었다는 의미에 가깝다.**

---

#### 4.12. Altcoin과 DeFi의 공통 결론

Altcoin과 DeFi를 관통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 유동성만으로 설명되는 시대는 종료되었고,
- 성과는 구조와 역할에 의해 결정되며,
- 대부분의 자산은 선택되지 않는다.

2026년의 Crypto 시장은 확장이 아닌 **배치의 시장**이다. Bitcoin (BTC)과 Ethereum (ETH)이 각각의 역할을 고정해가는 가운데, Altcoin과 DeFi는 선택받는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로 분화된다.

---

#### 4.13. Section 4 요약: 구조가 성과를 결정한다

2026년 Crypto 시장의 핵심은 단순하다.

- Bitcoin (BTC)은 거시 민감 준비자산으로,
- Ethereum (ETH)은 온체인 금융 인프라로,
- Altcoin과 DeFi는 선별된 구조 자산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는 Crypto 시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숙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 Section V. What Matters in 2026

### 예측이 아니라 관찰의 문제

2026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명확하다. 이 시기는 방향성을 단정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구조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 국면이다. 가격 목표나 단기 이벤트보다, 어떤 변화가 누적되고 있는지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2026년 Crypto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5.1 유동성의 성격: 공급이 아니라 정착

2026년의 핵심 변수는 유동성의 '규모'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어디에 머무는가**다.

- 단기 완화 기대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자금인지,
- 아니면 구조적 배치를 전제로 정착하는 자금인지.

이 구분은 Bitcoin (BTC), Ethereum (ETH), Altcoin, DeFi간 성과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더라도, 그 효과는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흡수 능력을 갖춘 자산만이 그 혜택을 누린다.**

---

#### 5.2 제도화의 실질적 진전

제도화는 이미 시작된 흐름이지만, 2026년의 관건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 접근 가능한 상품 구조가 확대되는가,
- 기관 자금이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가,
- 거래·보관·회계 측면에서 마찰 비용이 낮아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Crypto 자산 간 위계를 더욱 고정시킨다.

제도화는 단기 촉매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누적 과정**이다.

---

#### 5.3 상대 성과 구조의 고착 여부

2026년은 절대 수익보다 **상대 성과 구조가 고착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Bitcoin (BTC) 대비 Altcoin
- 구조적 DeFi 대비 내러티브 기반 프로젝트
- 역할이 명확한 자산 대비 그렇지 않은 자산

이러한 상대 성과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이는 단순한 국면이 아니라 **체계적 변화**로 해석해야 한다.

---

#### 5.4 변동성의 의미 변화

변동성은 더 이상 단순한 리스크 지표가 아니다. 2026년의 변동성은 자본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 변동성이 빠르게 회복되는 자산,
- 조정 이후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자산,
- 이벤트 소멸 이후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자산.

이러한 특성은 구조적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

### 5.5 Section 5 요약: 구조를 읽는 해

2026년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찾는 해가 아니다. 이미 형성된 구조가 어디까지 고착되는지를 확인하는 해에 가깝다.

- 정책은 완화로 향하지만, 그 속도는 제한적이며,
-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확산되지 않고,
- 자본은 베타보다 **역할을 선택**한다

이 환경에서 Crypto 시장의 성과는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

## Closing Note

### From Cycles to Roles

2026년의 Crypto 시장은 다시 한번 모두가 참여하는 장세로 회귀하기보다는, 누가 선택되는지가 분명해지는 시장에 가깝다.

Bitcoin (BTC)은 거시 민감 자산으로, Ethereum (ETH)은 금융 인프라로, 그리고 Altcoin과 DeFi는 극단적으로 선별된 구조 자산으로 기능한다.

이는 시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Crypto가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2026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빠른 결론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인내심 있게 관찰하는 시각이다.

---

## Disclaimer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회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